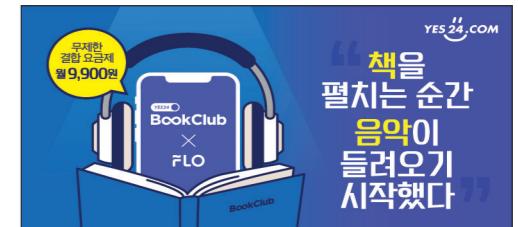


기독일보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음력 1월 19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746호

“한국교회, 3·1운동 때처럼 하나 되자”

한국교회총연합, 3·1운동
제102주년 기념예배 드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
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지난
달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3·1
운동 제10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기체 목사(기성 종회장)가 인도한 예
배는 이철 감독(기감 감독회장)의 환영
사,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 종회장)의 기
념사, 김윤석 목사(예성 종회장)의 기도,
홍정자 목사(예장 전리 종회장)의 성경봉
독,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종회장)의 설
교, 김홍철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총회장)·정인석 목사(대한예수교복음교
회 총회장)·김명희 목사(예장 보수개혁 종
회장)가 인도한 특별기도, 이영훈 목사(기
하성 대표종회장)의 격려사, 인요한 박사
(월리안 린튼 선교사 손)·신원철 청년신
석구 목사(고손·노신국 권사이필주 목
사 외손)에게 감사패 증정, 박주옥 교수
(백석예술대)의 3·1절 노래, 선언문 발표,
만세삼창, 최기학 목사(예장 통합 종회장
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이철 감독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
며 힘들어하는 오늘, 한교총이 나라와 민
족의 큰 평화와 조화를 기대하며 예배하
기를 원한다”고 했다.

장종현 목사는 기념사에서 “3·1운동은
계층과 지역, 성별과 종교의 장벽을 뛰어
넘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
민국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다”
며 “3·1운동은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시
작이라 할 수 있는 민족사적 운동이고,
세계사적으로는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모범”이라고 했다.

이어 “1919년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
가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 교회는 3·1운동 확산
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20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숫자였음에도 3·1운동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교회가 성령 안
에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다.

장 목사는 “3·1운동에 한국교회가 지
대한 공헌을 했던 것처럼 현재의 상황에
서도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소금과 빛의 사
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 되어야 한다”고 했다.

“미안의 3·1운동, 한국교회가 이루자”(출
5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소강석 목



“대한민국 만세” 한교총 3·1운동 제102주년 기념예배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한교총

사는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
한 사건이었다. 우리 국민의 자주적 의식
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 애절한 계몽운
동이었고 위대한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며 “3·1운동의 이번에는 기독교 선교사들
의 역할이 있었다”고 했다.

소 목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
들이 볼 때는 일제의 만행이 너무나 반민
주적이고 반후마니즘적이며 반근대적으
로만 보였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심과 소신을 갖고 미션스쿨과 교
회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박애, 인권, 민주주의를 가르쳤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내부
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가로 남아 있다”며 “그러므로 102년 전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
갔다면 미안의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완
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을 이
루는 화합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떤 한 정파에 서서는 절대
로 안 된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
고, 초 갈등사회를 화해사회로 바꾸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이나, 아
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함께 비난하
며 적대시하는 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
라’는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우리 교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화해하고, 용서
하면서 관대한 세상, 서로 사랑하는 사
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
의 이웃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건
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무엘 마忤 선교사와 모리 선
교사는 아예 3·1운동 집회에 참여를 하
였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특별히 스
코필드 선교사는 파고다공원에서 만세
를 외친 사진을 비롯해서 제암리 사건
등을 직접 찍어서 외신기자회견까지 해
서 전 세계에 알렸다”며 “만약에 스코필

드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3·1운동은 역사
의 뒤판길에 감추어진 사건으로 끝날 뻔
했다. 그뿐인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
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일제의 만행
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소 목사는 특히 “그러나, 그렇게 위대
했던 3·1운동도 아직은 미안으로 끝났다
고 할 수 있다. 3·1운동의 정신과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세
우는 것이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천하
는 것이었다”며 “그렇게 해서 인류공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내부
적으로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가로 남아 있다”며 “그러므로 102년 전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
갔다면 미안의 3·1운동도 한국교회가 완
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을 이
루는 화합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어떤 한 정파에 서서는 절대
로 안 된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
고, 초 갈등사회를 화해사회로 바꾸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이나, 아
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회를 비난한다고 함께 비난하
며 적대시하는 것은 ‘네 원수를 사랑하
라’는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며 “우리 교회는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서 화해하고, 용서
하면서 관대한 세상, 서로 사랑하는 사
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주변
의 이웃과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건
여야 한다”고 했다.

실하는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 관계에 있어
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시대에 남
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의 노래
를 부르고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큰 일을
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격려자 한 이영훈 목사는 “당시 우리
에게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열망은
있었지만, 정작 일제에서 독립을 이를 능
력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나 버린 것 같은 삼일운동의 부르짖음을
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며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도 예
상하지 못했던 때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연약
함과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며 “남북통일을
위해, 국민 대통합을 위해 코로나19의 조
속한 종식과 상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
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교총 공동대표회장들인 소강
석·장종현·이철 목사가 ‘3·1운동 102주
년 한국교회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생명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는 나
라, 노동의 땀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토
론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을 소망한다”며 “3·1운동을 통하여 대한
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역사적 전통을 토
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위안부가 매춘부? 역사적 사실의 왜곡”

살롬나비, 논평 통해
램지어 교수 주장 비판

살롬나비는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
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최근 논란
이 되고 있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위
안부’ 관련 주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삼
일절인 1일 발표했다.

살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지난 2월 전
시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성노에
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하
버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에 대해 미 학계, 미 의원 및 미
한인단체 등의 비난 목소리가 점점 커지
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이미 보
편적으로 알려진 위안부 사실을 부인하
는 충격적 주장”이라며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분명히 배치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동
원된 성노에 상태였다고 규정한 유엔과
국제 앤네스티 등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
식뿐만 아니라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운
영에 관여했고,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1993년 고노 담화와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성
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 사항이다. 지난 1996년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성노
예라는 표현이 등장한 뒤부터 본격적으
로 통용돼 왔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이러한 논문을
지원한 일본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인권 문제에 관
심이 많은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
정부도 해외에서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
동을 하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
릴 수 있도록 외교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어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지연 대표 “청년
이여, 결혼하라” 2면

한국교회 선교사,
168국 2만2,259명 5면

목회자 초청 북한
교회 개척학교 서밋 7면

기독미술가 이민영
“한 영혼이라도 더” 22면

서울 마지막 반값 아파트!

잡는 순간 억 소리나는 프리미엄
서울에 이런 가격은 없다!

3호선·6호선·GTX역 연신내역 트리플역세권! (신분당선 예정)
북한산 청정 숲세권과 명문 학세권!



그랜드 오픈

PRIMIUM

골프장, 휴트니스 등
고급격 커뮤니티

GTX-A(2023년 개통예정)
역세권 프리미엄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영



맞벌이 부부를 위한
호텔급 조식

GTX 연신내역 트리플로 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3종 (선착순 50명)

선물 하나

선물 둘

선물 셋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증정

3,000만원 상당
가전가구
풀옵션 무상제공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상담
문의

1811.0100